

양화 명사구와 조응에 관한 연구*

이영헌

(조선대학교)

Hong, Young-Hern. 2002. Quantificational Nominals and Anaphor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2), 43-65. This paper aims to explore some of the aspects of anaphora in quantificational nominals in Korean, such as the [Noun₁ + Quantifier + Noun₂]_{NP} structure, and to formalize the anaphoric relation between Noun₁ and Noun₂ by way of dynamic semantic representation. Descriptions of Korean quantificational expressions still contain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such as modificational relations between Noun₁ and Noun₂, the selection of the head expression, assignment of a subcategory to Noun₂, deletion of the head noun, and movement of both Nouns out of the maximal projection boundary in the traditional approach. However, we argue that Noun₁ is an antecedent and Noun₂ is the anaph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neatly solved if we treat Noun₂ as an anaphor and Noun₁ as an antecedent based on empirical evidence and Williams' GPAD and PAI.

주제어(Key words): 조응어(anaphor), 양화명사구(quantificational nominals), 역동적 의미론(dynamic semantics)

1. 서론

양화명사구(quantificational nominals)는 형태상으로는 수량어와 명사의 결합구조로 간주할 수 있으며, 통사적으로는 조응어(anaphor)와 공지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1) a. John bought *two books*.
- b. John bought *lots of books*.

* 본 논문은 2000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고 있다. 그리고 [명사₂]를 고영근(1998)에서는 “의존명사”로, 채완(1983), 임홍빈(1991)에서는 “분류사”로, 그리고 서정수(1996)에서는 “수량단위 명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양화사구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한 것은 이들 범주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다양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익섭(1973)에서는 [명사₁]과 [수량어 + 명사₂]의 관계를 동격관계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영희(1984)에서는 이들 사이에는 양화사 이동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곤(2000)에서는 [명사₂]를 조응어로 간주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국어 양화사구에 대하여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양화사구는 통사적으로 명사구라는 전제에서 명사구 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본 고에서는 국어 양화사구의 통사구조를 [명사₁]_{NP1}와 [수량어 + 명사₂]_{NP2}의 독립적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종래 양화사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역동적 의미론(dynamic semantics)의 모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국어 제 2유형의 양화사구 가운데 [명사₁]은 선행어이며 [명사₂]는 조응어임을 밝힘으로써 [명사₂]의 범주 설정의 문제, [명사₁]과 [수량어 + 명사₂] 사이의 수식관계의 문제, [명사₁]의 생략 및 이동 등의 문제를 선행어-조응어의 관계에 의하여 양화사구 기술의 논의를 단순화 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제기

국어의 양화사구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화사구의 내적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양화사구는 통사적으로 명사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어 양화사구 분석의 일차적 대상은 양화사구의 내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어 양화사구의 내적 구조 관계는 몇 가지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 [책 두 권]

- a. [명사₁]_{NP1} + [수량어 + 명사₂]_{NP2}
- b. [[명사₁]_{NP1} + [수량어 + 명사₂]_{NP2}]_{NP3}

3) 시정곤에서는 [명사₂]에 조응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 외에는 [명사₂]가 조응어라는 명시적 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국어 양화사구의 내적 구조 관계를 두 가지 구조로 대별하면 (4a)와 같이 분석하는 방법과 (4b)와 같이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가지 방법은 NP₁과 NP₂를 각각 독립적 명사구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NP₁과 NP₂가 NP₃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로서 NP₁도 독립적 명사구이고 NP₂도 독립적 명사구이지만, 이들 각각의 NP는 NP₃의 구성요소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조적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양화사구 분석은 (4b)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어 양화사구의 구조를 (4b)와 같이 분석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b)의 NP₂는 의미상 수식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NP₁과 NP₂ 사이에는 수식구조 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4)의 책 두 권을 (4b)와 같이 분석한다면, 책 두 권은 하나의 구성요소임으로 이들 사이에는 합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에 의하여 책 두 권이 갖는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책 두 권이 갖는 의미는 NP₂인 두 권이 NP₁인 책을 수식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선행하는 국어 수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한다면 NP₁인 책이 NP₂인 두 권을 수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어의 양화사구를 (4b)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수식 구조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양화사구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후행 할 수 있다는 예외적 현상을 인정하더라도, 내적 구조를 수식관계로 파악하는 경우와 양화사구 본래의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화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영근(1998)에서는 [명사₂]를 “의존명사”로, 그리고 채완(1983)에서는 “분류사”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나 분류사로 간주하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는 독립적인 명사구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₂]가 의존명사나 분류사로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의 의미적 특성이나 통사적 특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사₂]의 특성이 밝혀져야 [명사₂]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화사구에 대한 기본 구조를 (4b)로 간주하면서도 NP₁이나 NP₂가 NP₃의 경계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김영희:1984). 그러나 NP₁이나 NP₂가 NP₁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 경계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NP₁이나 NP₂는 NP₃의 구성요소가 아님을 말해준다. 따라서 NP₁이나 NP₂의 이동관계나 NP₁과 NP₂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4b)의 구조 가운데 NP₁이 생략되는 경우, NP₂가 NP₃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x . N . y]_{NP}에서 N이 생략되고 x나 y가 NP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라면 N은 핵어가 아니거나 아니면 국어 양화 사구는 [x . N . y]_{NP}구조로 파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NP₁과 NP₂는 NP₃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나아가서 [명사₁]은 선행어이며, [명사₂]는 조응어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산명사구의 경우는 물론이고 물질명사구의 양화의미도 선행어와 조응어의 관계에 의하여 형식화 하고자 한다.

3. 역동적 의미론

역동적 의미론은 일차술어논리(first-order predicate logic)를 확대한 술어논리 체계의 문법모형이다. 일차 술어논리에서 한 문장의 의미는 진리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역동적 술어논리에서는 어떤 상태의 정보로부터 다른 상태의 정보로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 정보가 갖는 진리조건의 쌍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두 정보의 집합적 기술은 마치 담화표상 이론에서 선행명제 속의 정보가 후행명제의 대응 지시로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행명제의 정보가 후행명제의 정보로 변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 문장의 의미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⁴⁾ 역동적

4) 역동적 의미론은 문장단위 의미론인 Montague 문법과 담화 단위 의미론인 담화표상이론이 결합된 문법체계이다. 문장 단위 의미론과 담화단위 이론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Montague의 의미론이 철저히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서 담화표상이론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Montague의 의미론은 문장 단위 이상의 문맥에서 볼 수 있는 조응관계나 당나귀 문장 등의 조응관계를 기술할 수 없는데 반해서 담화 표상이론은 이러한 문제를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문법체계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장 단위 의미론의 장점과 담화 단위 의미론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문법체계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당나귀 문장의 조응관계나 문맥에 나타나는 조응관계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i) A man walks in the park. He whistles.

(i)의 두 번째 문장의 he는 첫 번째 문장의 a man과 조응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칭양화사가 두 문장이 결합된 의미의 전체를 그 수식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i)의 의미는 (ii)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ii) a. $\exists x [\text{man}(x) \wedge \text{walk-in-the park}(x) \wedge \text{whistle}(x)]$

b. $\exists x [\text{man}(x) \wedge \text{walk-in-the park}(x)] \wedge \text{whistle}(x)$

그러나 (i)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ii)에서처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

의미론은 문장의 의미에 동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는 문법모형이다.

역동적 의미론에 의한 한 문장의 해석은 치환당의 순서쌍으로 간주한다. 이는 마치 입력-출력 쌍의 집합과 같다. Chierchia (1995)에 의하면 임의의 문장 s 의 번역을 s' 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s' \wedge \mathbb{P}]$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s' \wedge \mathbb{P}]$ 에서 \mathbb{P} 는 s 에 부가될 수 있는 정보로써 명제변항(propositional variable)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개의 문장 s_1 과 s_2 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5) [s_1' \wedge p] + [s_2' \wedge p] = [s_1' \wedge s_2' \wedge \mathbb{P}]$$

즉 (5)에서 보인 명제의 의미표시에 따라 (6a)는 (6b)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6) a. A man walked in.
 b. $\exists x[\text{man}(x) \wedge \text{walk-in}(x) \wedge \mathbb{P}]$

(6b)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밑줄 친 부분은 (6a)의 일차술어 논리적 의미 표시이고, \mathbb{P} 는 문맥에 따라 삽입될 수 있는 가능한 연속체의 변항이다.

이렇듯 단문의 의미 표시는 물론이고 후행절을 수반하는 경우의 의미 역시 명제와 변항의 집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

- (7) a. A man walked in. He was tall.
 b. $\exists x[\text{man}(x) \wedge \text{walk-in}(x) \wedge \mathbb{P}] + [\text{tall}(x) \wedge \mathbb{P}]$
 $= \exists x[\text{man}(x) \wedge \text{walk-in}(x) \wedge \text{tall}(x) \wedge \mathbb{P}]$

문장뿐만 아니라 명사구도 역동적 술어 논리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예 문장은 종속적 관계로 기술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다면 (i)의 의미는 (iia)와 같이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iib)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iia)는 합성성의 원리를 어기고 있지만, 이들 두 표현 사이의 조응관계는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iib)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만, (i)의 조응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즉 (iib)의 $\text{whistle}(x)$ 의 x 가 $\exists x$ 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역동적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법이며, 역동적 술어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역동적 의미론이다.

5) Montague 문법의 입장에서 보면 s' 은 외언이라고 할 수 있고, \mathbb{P} 는 내포라고 할 수 있다.

- (8) a man \Rightarrow a(man)
 = $\mathcal{N}\mathcal{P}\mathcal{Q}\exists y [P(y) \wedge Q(y)](\mathcal{K}[\text{man}(x) \wedge P])$
 = $\mathcal{Q}\exists y [\mathcal{K}[\text{man}(x) \wedge P](y) \wedge Q(y)]$
 = $\mathcal{Q}\exists y [([\text{man}(y) \wedge P] \wedge Q(y))]$

(8a)에서 보는 것처럼 man의 의미를 $\mathcal{K}[\text{man}(x)]$ 와 $[P]$ 로 간주하고 여기에 양화표현 a 가 갖는 의미가 결합된 a man의 의미는 $\mathcal{Q}\exists y [([\text{man}(y) \wedge Q(y)]$ 와 $[P]$ 의 쌍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역동적 술어 논리 기술에 의하면, 담화표상 이론의 문장형식 $Q_{x,y} [A]B$ 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양화표현 Q의 순서쌍 $[x, y]$ 는 A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B도 만족하는 경우에, $Q_{x,y} [A] [B]$ 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임의의 표현을 일차 술어 논리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역동적 의미론에 의한 치할당의 순서쌍으로 기술하는 것과 동일하다.

4. 양화사구의 몇 가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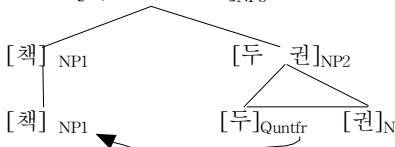
4.1. 양화사구의 통사적 특성

명사구는 하나의 핵어(head)를 중심으로 보충어(complement)나 부가어(adjunct)가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4b)의 NP₁과 NP₂ 사이의 관계로부터 양화사구의 통사적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첫째, 국어의 양화사구를 명사구로 간주한다면 (4b)에서 본 것처럼 $[[\text{명사}_1]_{NP_1} + [\text{수량어} + \text{명사}_2]_{NP_2}]_{NP_3}$ 구조를 갖는 경우이다. 이 경우 NP₁이 NP₃의 핵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NP₂는 NP₁을 수식하기 때문이다.

- (9) a. 책 두 권

b. [책 두 권]_{NP3}



(9a)와 같은 국어 양화사구 *책 두 권*의 구조는 (9b)와 같은 우분지(right branching structure)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미상으로는 NP₂가 NP₁을 수식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핵어와 보충어 관계는 피수식어와 수식어 관계이며, 통사적으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선행하는 것이 국어의 일반적인 수식구조이다. 따라서 양화사구 *책 두 권*의 구조는 *책*이 핵어이고 *두 권*은 수식어임으로 피수식어가 수식어에 선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수식구조의 일반성에 따른다면 NP₁은 수식어라고 할 수 있고, NP₂는 피수식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양화사구는 (9b)와 같은 수식관계도 아니며, [[NP₁] + [NP₂]]_{NP3}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도 아니다.

둘째, 국어의 양화사구에는 [명사₁]과 [명사₂]가 존재한다. 이 경우 두 명사 사이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이들 명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에도 불구하고 [명사₂]는 수량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형태 • 통사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이를 의존명사 또는 분류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10) a. 칠수가 쇠고기 두 근을 떠 왔다.
 b. *칠수가 쇠고기 근을 떠 왔다.
 c. 고기가 근이 부족하다.
- (11) a. 칠수는 구두 두 켤레를 샀다.
 b. * 칠수는 구두 켤레를 샀다.
 c. 칠수는 구두를 켤레나 닳혀 먹었다.
- (12) a. 칠수는 책 두 권을 읽었다.
 b. ?칠수는 두 권을 읽었다.
 c. 칠수는 책 권이나 읽었다.
- (13) a. 칠수는 술 두 잔을 마셨다.
 b. ?칠수는 두 잔을 마셨다.
 c. 칠수는 잔을 기울였다.

(10-13)의 양화사구 가운데 후행하는 명사사구 예컨대 (10a)의 *근*, (11a)의 *켤레*, (12a)의 *권*, (13a)의 *잔* 등과 같은 표현을 의존명사로 간주하였다. 이들 명사를 의존명사로 간주한 것은 이들 명사는 문법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갖지 못하고 항상 선행하는 요소와 공기해야 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즉 (10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10b)가 비문법적인 것은 이들 표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명사로 간주하였던 (10c)의 *근*, (11c)의 *컬레*, (12c)의 *권*, (13c)의 *잔* 등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들 명사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이들 명사를 확일적으로 의존명사로 간주하는 데는 어휘가 갖는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구 가운데 [명사₂]의 의존적 특성과 자립적 특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국어의 양화사구가 하나의 구성요소라면 구성요소 내의 요소들은 이동의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명사구 내의 구성요소들의 이동은 핵어의 최대투사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 (14) a. *철수의 어머니는* 인자한 어른이다.
 b. **어머니는 철수의* 인자한 어른이다.
 c. **철수의* 인자한 *어머니는* 어른이다.

(14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14b)와 (14c)가 비문법적인 것은 [철수의 어머니]_{NP}라는 명사구 내의 요소들이 명사구 영역 밖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14a)의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의]_{ADJ}[어머니]_N]_{NP}와 같은 구조로 파악되며, 핵어인 [어머니]_N는 물론이고 부가어인 [철수의]_{ADJ}는 NP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사구 내의 요소들 가운데는 최대투사 범주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 (15) a. *철수가 책 두 권을* 샀다.
 b. *철수가 책을 두 권을* 샀다.
 c. *책을 철수가 두 권을* 샀다.

(15a)의 *책 두 권을*은 (15b)와 (15c)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명사구로 바꾸어 쓰더라도 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즉 (15b)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명사구 [책을]_{NP}과 [두 권]_{NP}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15c)에서 보는 것처럼 양화사구 사이에 또 다른 명사구의 삽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양화사구는 [명사]_{NP}와 [수량어 + 명사]_{NP}의 독립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화표현에서는 명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수량어에 의하여 양화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16) a. Mary was selling her books.
 b. I bought some.
 c. # I bought books.
- (17) a. 영희는 건강 서적을 팔고 있다.
 b. 철수는 두 권을 샀다.
 c. ?철수는 책 두 권을 샀다.
 d. ??철수는 책을 샀다.

(16b)의 경우는 [some . . . N . . .]_{NP}에서 N이 생략된 경우이고, (17b)의 경우는 [N . . . [수량어 + 명사₂] . . .]_{NP}에서 N이 생략된 경우이다. 따라서 (16b)와 (17b)의 양화표현은 완전한 명사구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럼에도 (16b)와 (17b)가 문법적인 것은 (16a), (17a)와 같은 맥락이 주어진 경우이다. 이렇듯 N 이외의 요소 즉 (16b)의 some, 그리고 (17b)의 [수량어 + 명사₂]가 양화사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보충어가 생략된 (16c)와 (17c), (17d)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문장이다. 즉 (16c)와 (17c), (17d)가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16c)의 books에는 “내가 산 책이 Mary가 팔고 있는 책”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며, (17c)와 (17d)의 경우에 있어서도 책 두 권이나 책이라는 표현에서 ‘건강서적’이라는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즉 (17c)와 (17d)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문장이다. 이렇듯 양화사구에 있어서는 수량어만으로도 양화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는 양화사구 가운데 명사가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한다.

- (18) a.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
 b. *사람이 먹다가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
 c.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18a)와 (18c)를 수용 가능성의 입장에서 비교하면 (18c)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18a)의 경우에는 명사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18c)에는 명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특히 (18c)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18b)가 비문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은 바로 양화사구에서 수량어만으로 양화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한다. 양화사구의 수량개념은 명사가 갖는 속성이지만 수량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가 생략된 경우에도 양화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통해서 양화사구는 보통명사구와는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2 선행어와 조응어

양화사구가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양화사구는 선행어으로써 조응어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 Those who know *him_i* dispise every *manager_i*

- (20) a. 버스에 탄 학생 두 명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b. 버스에 탄 학생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c. 버스에 탄 두 명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19a)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의 양화사구 every manager는 조응어 him과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 있어서 선행어와 조응어 사이의 조응관계는 영어의 조응관계와 다를 수 있다. 국어의 양화사구는 양화사구 뿐만 아니라 양화사구의 구성요소도 선행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a)의 경우, 학생 두 명이, (20b)에서는 학생들이, 그리고 (20c)에서는 두 명이 각각 선행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들에 상응하는 조응어는 자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어의 양화사구 학생 두 명은 물론이고 학생, 그리고 두 명 등도 각각 선행어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양화사구의 논의에서는 이들 선행어와 조응어 사이의 관계를 간과하였다.

국어의 양화사구는 선행어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선행어와 조응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Williams(1997)에 의하면 선행어와 조응어 관계에서 조응어를 결정하는 일차적 특성을 선행어와 조응어의 동일성(identity)이 아니라 의존성(dependence)으로 규정하고 있다.

- (21) [I assume you recall that this course requires a term paper]
 a. Anyone can turn *it_i* in to me now who has WRITTEN *his term paper_i*.
 b. *Anyone can try[to hand *it_i* in to me] s who has written *HIS TERM PAPER_i*.

(21a)와 (21b)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문장으로서 조응어 의존성에 따르면 이들 두 문장은 비문법적이어야 한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21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21b)는 비문법적이다. 특히 (21b)가 비문법적인 것은 첫째, 조응어가 선행어 앞에 올 수 없다는 조응어 의존성을 위반하였고, 둘째 선행어는 강세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어로 쓰이는 his term paper는 강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a)가 문법적인 것은 첫째, 선행어인 his term paper가 강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속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21a)의 his term paper는 it의 선행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조응어이기 때문에 선행어와 조응어 사이의 선행어 의존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his term paper를 조응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속의 주어진 맥락에 있는 a term paper가 선행어가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응어 it의 선행어는 his term paper가 아니라 []속의 a term paper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지시 관계에서 보면 (21a)의 his term paper와 it는 동일지시 관계임으로 his term paper를 it의 선행어로 간주하는 것은 의존성의 원칙에 의하여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it 와 his term paper는 동일지시 관계에 있지만, (21a)가 문법적이라는 것은 동일성⁷⁾에 의하여 조응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lliams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국어 양화사구는 선행어와 조응어로 분석할 수 있다.

- (22) a. 책 두 권
 b. *책 두 책
 c. *권 두 권
 d. *권 두 책

6) Williams가 제시한 양화사 의존성의 일반적 모형(general pattern of anaphoric dependence: GPAD)는 다음과 같다.

- (i) [. . . pro . . .]_{subord} [. . . antec . . .]_{subord}
 (ii) * [. . . pro . . .]_{matrix} [. . . antec . . .]_{matrix}
 (iii) [. . . antec . . .]_{matrix} [. . . pro . . .]_{subord}
 (iv) [. . . antec . . .]_{subord} [. . . pro . . .]_{matrix}

즉 (ii)처럼 모문에 대명사(조응어)가 나타나고 선행어가 후행하는 경우에만 비문법적 표현이 된다.

7) Williams에서 말하고 있는 의존성이란 선행관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계를 말하고, 동일 지시관계는 c-command에 의해서 지배되는 관계를 말한다.

(22a)가 문법적인 것은 우선 책은 권을 선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존성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책은 권을 c-command 하지만, 권은 책을 c-command 하지 못한다. 따라서 책은 선행어이고 권은 조응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2b-d)는 비문법적 표현이다. (22b)의 선행어 책과 조응어 책은 동일한 요소이고 (22c)의 경우 역시 선행어 권과 조응어 권은 동일한 요소이다. 따라서 (22b)와 (22c)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으나 의존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2b)의 선행어 권과 조응어 책 사이의 관계는 의존성도 준수하지 못하고 동일성도 준수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Williams가 제시한 조응어 명사의 원칙(the principle of anaphoric identification)에 따르면 (22a)의 책 두 권에서 책은 선행어이고 권은 조응어임을 알 수 있다.

(23) The principle of anaphoric identification (PAI)

The antecedent of an anaphor cannot be contained in its context of identification. (williams 1997:595))

- (24) a. John's mother is smarter than Bill's
 b. John's mother's mother is smarter than this father's mother.
 c. John's mother's mother is smarter than this father's φ
 d. *John's mother's φ is very smart.
 e. [[[John]_{NP}'s [mother]_N']_{NP}'s φ]_{NP} is very smart. (φ = mother)

(23)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행어와 조응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생략 요소이다. (24c)의 φ 는 mother가 생략된 자리이며 또한 (24d)의 φ 자리에도 mother가 생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c)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24d)는 비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24e)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NP 속에 선행어와 조응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행어와 조응어는 하나의 동일구조 속에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Williams의 PAI를 어겼기 때문이다.

Williams(1997)에서 제시한 PAI에서 본다면, 국어 양화사구는 동일한 구조 속에 선행어와 조응어가 공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 (25) a. * [[책]_{NP1} [[두]_{Quantifier} [권]_{NP2}NP3]_{NP4}
 b. [책]_{NP1} [[두]_{Quantifier} [권]_{NP2}NP3

(25a)에서 보는 것처럼 국어의 양화사구 [책 두 권]을 NP₄라는 하나의 명사구로 간주한다면 (23)의 원칙에 의하여 [책]_{NP₁}과 [권]_{NP₂} 사이에는 선행어와 조응어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양화사구 [책 두 권]의 구조는 (25a)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25b)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면 NP₁과 NP₃는 독립적인 두 개의 명사구로 간주되며, 따라서 (23)의 원칙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NP₁인 [책]은 선행어라고 할 수 있으며, NP₃인 [두 권]은 조응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화명사구 책 두 권이 (25b)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책과 두 권이 독립적 기능을 하면서도 의미에 있어서는 (26)의 세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데서 책과 두 권은 독립적인 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 (26) a. 철수가 책 두 권을 샀다.
 b. 철수가 책을 두 권을 샀다.
 c. 책을 철수가 두 권을 샀다.

(26)의 3개의 표현이 모두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26a)에서는 책 두 권이 하나의 논항으로 보이고, (26b)에서는 두 개의 논항 즉 책들과 두 권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26c)에서는 책과 두 권 사이에 다른 표현이 삽입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책 두 권은 (25b)와 같은 구조임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책과 두 권은 각각 독립된 요소이며, 이들 사이에는 (23)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책 두 권에서 책과 두 권이 독립적 요소라는 것은 이들의 의미적 결합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일에 책 두 권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면 구성요소간에는 수식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철수의 어머니]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한 것은 이들 구성 요소 사이에는 수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 두 권의 의미와 이들 요소들간의 수식관계로 표현한 두 권의 책의 의미는 동일해야 할 것이다.

- (27) a. 책 두 권 ≠ 두 권의 책
 b. 수학 책 두 권 ≠ 두 권의 수학 책
 c. 자서전 두 권 ≠ 두 권의 자서전

예컨대 철수가 그의 유산으로 두 권의 자서전을 남겼다고 하자. 이 경우 두 권의 자서전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동일 내용의 자서전)을 두 권 남긴 경우이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철수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권으로는 그의 일생을 다 기록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 권(전편과 후편)으로 자서전을 기록한 경우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내용이 다른 두 권의 자서전을 남긴 경우이다. 그러나 자서전 두 권에는 자서전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을 전제하며, 동일한 내용의 책(자서전) 두 권을 남긴 경우이다. 즉 자서전 두 권에는 중의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서전 두 권과 두 권의 자서전은 동일한 의미표현이 아니다. 또한 수학 책 두 권과 두 권의 수학 책은 동일한 의미일 수 없다. 수학 책 두 권은 동일한 내용의 책 두 권을 의미하는 경우이지만, 두 권의 수학 책에서는 내용이 동일한 책 두 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다른 수학 책 두 권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듯 책 두 권과 두 권의 책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두 권이 책을 수식하는 데서 의미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책과 두 권 사이에는 피수식어와 수식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책 두 권]은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명사₁]와 [명사₂] 사이에는 공지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명사₁]과 [명사₂] 사이에는 선행어와 조응어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의미상으로도 양화사구 가운데 [명사₁]은 선행어이고 [명사₂]는 조응어라는 것은 선행어와 조응어가 공유하는 의미자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28) a. * {Mary, Anna, . . . } - himself.
 b. *{연필, 분필, . . . } - 권
 (29) a. {John, Jack, Kennedy, . . . } - himself.
 b. {책, 공책. . . } - 권

(28a)와 같은 경우는 선행어 Mary, Anna는 후행어 himself와 서로 상이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또한 (28b)에서도 선행어와 후행어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 자질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선행어와 후행어 사이에는 조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해서 (29)가 문법적인 조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선행어와 조응어 사이에 동일한 의미적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화사구와 조응어 사이의 관계는 이들의 논항 구조의 특성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 (30) a. John loves himself.
 → Love(j, j)
 b. John, himself, met the president.
 → Met((j=himself), President)
- (31) a. 철수는 책 두 권을 샀다.
 → 사다(철수, #2(책=권))
 b. 철수는 책을 두 권을 샀다.
 → 사다(철수, #2(책=권))

(30)에서 보는 것처럼 John과 himself는 공지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John은 선행어 himself는 조용어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용관계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30a)에서 보는 것처럼 Love(j, j)로 쓸 수 있다. 즉 Love의 내부논항 himself를 j로 표시한 것은 John과 himself는 동일지시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어와 조용어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논리식이 (30b)이다. (30b)에는 3개의 명사구 John, himself, the President가 있다. 그러나 meet는 2항 술어임으로 이들 3개의 논항을 두 개의 논항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경우 John과 himself는 선행어와 조용어 관계이면서 동시에 meet의 외부논항이다. 따라서 (30b)의 논리식에서 (j=himself)는 선행어와 조용어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논항구조에 합당한 기술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31a)에는 3개의 명사구 철수, 책, 두 권이 존재하지만, 서술어 사다는 2항술어 임으로 두 개의 논항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개의 명사구 책과 두 권은 사다의 내부논항으로써 논리식에서는 하나의 논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선행어 책과 조용어 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책 두 권은 두 개의 독립적 명사구이지만, 사다의 내부논항으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2(책=권)처럼 두 개의 논항을 하나의 논항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31a)의 책과 권 사이에는 조용관계가 성립하는 명사구임을 보여줄 수 있으며, 서술어의 매개논항(adicity)의 필요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5. 조용어의 역동적 의미표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국어 양화사구는 선행어와 조용어로 이루어진 두 개의 독립적 논항이면서도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논항으로 기술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듯 국어 양화사구가 갖는 선행어와 조용어 사이의 관

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명사₁], [수량어], 그리고 [명사₂]를 역동적 의미로 표시하고 이들의 결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화사구 가운데 수량어는 논리적 정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수량어의 의미는 동적 해석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치할당의 순서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국어 수량어는 통사적으로 보통명사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와 조응어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 (32) a.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죽었다
- b. 교통사고로 학생 두 명이 죽었다.

(32a)의 수량어 두는 보통명사 사람을 논향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32b)의 두는 조응어 명을 논향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명사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를 {두₁}라고 하고 조응어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를 {두₂}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33) a. {두₁} = $\lambda P \lambda Q \#2y [P(y) \wedge Q(y)]$
- b. {두₂} = $\lambda P \lambda Q \#2y [P(y) = Q(y)]$

(33a)의 {두₁}과 (33b)의 {두₂}의 의미적 차이점은, 전자는 두 명제형식 P(y)와 Q(y)가 연접으로 표시되는 데 반해서 후자는 두 명제형식이 동치관계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33a)의 수량어 두가 보통명사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의 논리적 의미표시는 다음과 같다.

- (34) a. 두 사람이 죽었다.
- b. $\text{두} = \lambda P \lambda Q \#2y [P(y) \wedge Q(y)]$
- 사람 = $\lambda x [\text{사람}(x) \wedge \mathbb{P}]$
- 두(사람) = $\lambda P \lambda Q \#2y [P(y) \wedge Q(y)] (\lambda x [\text{사람}(x) \wedge \mathbb{P}])$
- = $\lambda Q \#2y [\lambda x [\text{사람}(x) \wedge \mathbb{P}](y) \wedge Q(y)]$
- = $\lambda Q \#2y [[\text{사람}(y) \wedge \mathbb{P}] \wedge Q(y)]$
- 두 사람(죽다) = $\lambda Q \#2y [[\text{사람}(y) \wedge \mathbb{P}] \wedge Q(y)] (\text{죽다})$
- = $\#2y [[\text{사람}(y) \wedge \mathbb{P}] \wedge \text{죽다}(y)]$

수량어가 보통명사를 논향으로 취하는 경우는 실제 논항 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조응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표면상의 논항수에 관계없이

동사의 매개논항과 일치해야 한다.

- (35) a. 철수가 [책 두 권을] 샀다
 b. [책을] 철수가 [두 권을] 샀다
 c. 사다(철수, #2(책=권))

(35a)의 [책 두 권]에는 두 개의 독립적 논항 즉 선행어로서 [책]과 조응어로서 [두 권]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36b)에서는 [책을]과 [두 권]이 각각 독립적 논항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35a)와 (35b)의 의미표시 (35c)와 같다. 즉 (35a)와 (35b)의 의미를 (35c)와 같이 표시한 것은 서술어 사다의 매개논항은 2개임으로 외부논항 철수와 내부논항 #2(책=권)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책 두 권]이나 [책]과 [두 권]은 모두 #2(책=권)으로 나타냄으로써 매개논항에 합당한 기술이 될 수 있다.

- (36) a. {두₂} = $\lambda P \lambda Q \#2y [P(y) = Q(y)]$
 b. 책 = $\lambda x [책(x) \wedge P]$
 c. 권 = $\lambda x [권(x) \wedge P]$
 d. 두(권) = $\lambda P \lambda Q \#2y [P(y) = Q(y)] (\lambda x [권(x) \wedge P])$
 = $\lambda P \#2y [P(y) = \lambda x [권(x) \wedge P](y)]$
 = $\lambda P \#2y [P(y) = [권(y) \wedge P]]$
 e. 책 두 권 = $\lambda P \#2y [P(y) = [권(y) \wedge P]] (\lambda x [책(x) \wedge P])$
 = $\#2y [\lambda x [책(x) \wedge P](y) = [권(y) \wedge P]]$
 = $\#2y [[책(y) \wedge P] = [권(y) \wedge P]]$
 f. 철수가 책 두 권을 샀다
 = 사다(철수*, #2y [[책(y) \wedge P] = [권(y) \wedge P]])
 cf. 사다(철수, #2(책=권)) = 사다(철수*, #2y [[책(y) \wedge P] = [권(y) \wedge P]])

(36f)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가 책 두 권을 샀다]의 의미를 사다(철수*, #2y [[책(y) \wedge P] = [권(y) \wedge P]])⁸⁾와 같이 역동적 의미로 기술하였다. 이는 역동적 의미 기술에 있어서 표현의 의미를 치할당의 순서쌍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면 일차 술어 논리로 기술한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보통명사를 중심으로 양화표현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선

8) (36f)에서 [철수]의 의미를 철수*로 표시한 것은 역동적 의미의 약식 표시이다.

행어와 조응어 관계는 보통명사구의 양화표현뿐만 아니라 물질 명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화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강범모(1999)에서는 물질명사와 함께 쓰이는 이른바 의존명사의 양화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7) \text{ 물 두 잔} = \lambda x[F \text{ cup}(\text{water}(x)) \wedge \text{Card}(x)=2]$$

(37)에서 물질 명사 물을 선행어라고 한다면 잔은 조응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은 계량적 단위임으로 계량함수(measure function)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량함수이든 전이함수이든 간에 함수자와 논항 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야 하고 함수자와 논항사이의 관계가 동일 사상(mapping)이어야 한다. 예컨대 책과 권 사이에는 동일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물과 잔 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함수-논항 간의 관계를 달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함수-논항 사이의 공유하는 속성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의 수량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Bennett(1977)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물과 같은 물질명사는 실체물(entity)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명사를 실체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상 연산자 ‘quantity of’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즉 물질명사에 quantity of라는 추상적 연산자를 부가함으로써 물질명사를 가산명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산자 ‘quantity of’는 실체물을 개체화하는 연산자로 간주한 것이다.

(39) a. All water flows.

b. $(\forall x) [(quantity\ of' (\lambda PPw))(x) \rightarrow flow'(x)]$

(40) a. 물 = $\lambda x(quantity\ of' (\lambda PPw))(x)$ or
 $\lambda x(-\text{의 양}(\text{물}(x)))$

b. 한 잔 = $\exists x [잔(x) = X]$

c. 물 한 잔 = $(quantity\ of' (\lambda PPw))(x)(\exists x [잔(x) = X])$
 $= (quantity\ of' (\exists x [잔(x) = X] W))(x)$
 $= \exists x [quantity\ of [잔(x) = W(x)] \text{ or}]$
 $= \exists x [-\text{의 양} [잔(x) = \text{물}(x)]]$
 $= \exists x [잔\ \text{의 양}(x) = \text{물}(x)]$
 $\Rightarrow \#1(\text{물} = \text{잔의 양})$

- (41) a. 칠수는 술 두 잔을 마셨다.
 b. 마시다(칠수, #2(술 =잔의 양)
 c. 마시다(칠수*, #2y[[술(y) ∧ P]=[잔의 양(y) ∧ P]])

(39)는 Bennett(1977)에서 물질양화표현을 논리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39)를 토대로하여 국어 물질양화표현 술 두 잔의 의미는 (41c)에서 보는 것처럼 #2y[[술(y) ∧ P]=[잔의 양(y) ∧ P]]로 표시하였다. 이 또한 (41a)의 의미를 역동적 의미로 기술한 (41c)에서 각각의 의미를 치할당의 순서쌍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41b)와 같은 일차 술어논리적 기술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술 두 잔의 의미를 역동적 의미 표시에서는 #2y[[술(y) ∧ P]=[잔의 양(y) ∧ P]]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강범모(1999)에서는 물 두 잔의 의미를 $\lambda x[F \text{ cup}(\text{water}(x) \wedge \text{Card}(x)=2)]$ 로 표시한 것과는 서로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즉 강범모에서는 수량사 두가 보통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로 간주한데 반해서 (41c)에서는 두의 이형태소 가운데 두가 조용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 즉 {두₂}의 의미로 기술한 것이다.

6. 결론

본 고에서는 국어 양화사의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양화사구 내의 요소들 사이에는 선행어와 조용어 관계임을 밝히고 이를 역동적 의미론의 모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종래 국어 양화사구 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차적으로 국어의 양화사구는 [[명사₁]_{NP1} + [수량어 + 명사₂]_{NP2}]_{NP3}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어 양화사구는 통사적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구성요소 즉 NP₁과 NP₂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들 두 명사구 내의 [명사₁]는 선행어이고 [명사₂]는 조용어 관계임을 규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양화사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NP₁과 NP₂ 사이의 관계를 수식구조로 파악함으로써 수식구조상의 예외 현상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즉 NP₂는 NP₁을 수식하는 관계로 간주함으로써, 수식 구조상의 예외 현상을 인정하였으나 NP₁과 NP₂의 관계는 피수식어와 수식어의 관계가 아님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양화사구에서 예외현상으로 인정하였던 양화사구 수식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종래의 양화사구 분석을 수용한다면 양화사구에는 두 개

의 명사 즉 [명사₁]과 [명사₂]사이의 핵어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행어와와 조응어 관계로 기술함으로써 핵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음을 보였다. 셋째, 이른바 의존명사로 분류하였던 요소는 조응어임을 밝힘으로써, [명사₁]과 [명사₂] 사이의 의미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명사₁]의 이동현상 및 생략 현상을 통해서 NP₁과 NP₂는 NP₃의 구성요소가 아님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물질명사구의 양화의미도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선행어와 조응어 관계로 형식화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양화사구의 내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선행어-조응어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양화사구의 양화 의미 외에도 조응어 선택에 따른 선행어의 비명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42) a. 철수가 *오가피 나무* 두 가지를 샀다.
 b. 철수가 *오가피 나무* 두 그루를 샀다.
 (43) a. 철수가 *고추* 두 개를 샀다.
 b. 철수가 *고추* 두 그루를 샀다.

(42)의 선행어는 *오가피 나무*이지만 (42a)의 조응어는 *가지*이고 (42b)의 조응어는 *그루*이다. 이렇듯 동일한 선행어라 할지라도 조응어에 의하여 선행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42a)의 의미는 주어진 어휘 표현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매매 행위에 있어서 나무 가지를 팔고 사는 경우는 매매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a)가 문법적인 것은 선행어 *오가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약제로써의 *오가피 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42b)에 있어서는 동일한 선행어임에도 불구하고 *오가피 나무*는 나무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43)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행어는 *고추*이지만 조응어에 따라 (43a)의 경우는 *고추 열매*를 의미하고 (43b)의 경우는 *고추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듯 조응어의 성격에 따라 선행어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조응어의 의미·화용적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 외 (1999).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서울: 한신문화사.
- 고영근. (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김영희. (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1(2)
- 김영희. (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9).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시정근. (2000).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언어*, 25(1).
- 이익섭. (1973). 국어 수량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 임홍빈. (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임홍빈. (1991). 국어 분류사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연구회*(편)
- 장경희. (1990). 조응표현. *국어연구회*
- 장선. (1977). Korean Reflexive Pronoun Caki and its referent NP's Point of View, *Language Research*, 13(1)
- 채완. (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 Baker, S. J. (1997). E-Type Pronouns, DRT, Dynamic Semantics, and the Quantifier/variable binding Model,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2).
- Barwise, J. (1987). Noun Phrase, Generalized Quantifiers and Anaphora, In P. Gardenfors, (Ed.). *Generalized Quantifiers* (pp. 1-29). Dordrecht: Reidel,
- Bennet, M & Partee, B. H. (1978). *Towards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s in English*,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Chang, S. J. (1978). Anaphora in Korean, In J. Hinds(ed.) *Anaphora in Discourse, Linguistic Research*, Alberta,
- Chierchia, G. (1992). Anaphora and Dynamic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2).
- Chierchia, G. (1995). *Dynamic of Mean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per, R. (1979).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In F. Heny and H. Schnelle, (Eds.). *Syntax and Semantics* 10, New York: Academic Press.
- Greoenendijk, J. and M. Stokhof, (1991). Dynamic Predicate Logic,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1).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 Ph. D. Dissertation, Amherst: U. Mass.
- Heim, I.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 Kamp, H. and Y.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arttunen, L. (1976). Discourse Referents. In J. McCawley, (Ed.). *Syntax and Semantics* 7, New York: Academic Press.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MIT Press
- Lee, C. M.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Lee, Ikwhan, (1978). Pronominal Anaphor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4(1).
- Milagrosa Ramos-Santacruz (1997). On the semantics of Quantificational Null Nominals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Student Conference in Linguistics, MIT WP*, 31.
- Partee, B.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 Rooth, M.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in Montague Grammar, File Change Semantics, and situation Semantics. In P. Gardenfors, (Ed.). *Generalized Quantifiers*, Dordrecht: Reidel.
- Williams, E. (1997). Blocking and Anaphora, in *Linguistic Inquiry*, 28(4).
- Zeevat, H. (1989). A compositional Approach to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1).

이영현

100-100 광주시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 230-6933

이메일: ounlee@hanmail.net

Received in March, 2001

Accepted in May, 2002